

‘기업 회생’ 홈플러스 매각 추진…‘동광주점’ 포함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내년까지 동광주점을 포함한 5개 점포 우선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이후 임대 운영이나 재임점 가능성 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매각 이후 고용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가 나오는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 생계획안에 동광주점을 포함한 유성점, 서 수원점, 아암점, 진해점 등 5곳을 추가 매각할 예정이다.

이들 점포의 예상 매각대금은 약 4000 억원으로, 홈플러스는 자산 현금화를 통해 회생채권 변제 대원과 운영자금을 마련해 경영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경영진, M&A 무산 후 자산 정리로 경영 정상화 구상

동광주점 폐점 시 직·간접 고용 200여명 타격 불가피

현재 동광주점은 매수자와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매각 뒤 협의 결과에 따라 임대 운영 또는 재임점이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동광주점은 홈플러스 자가 소유로 임대 점포 위주로 폐점하겠다는 계획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재정 악화로 인해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점포 매각 후 임대 형

식으로 운영할지가 매수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각 대상 모든 점포가 폐점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점포 5곳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회사 청산이 아니라 일부 자산을 정리해 기업 존속과 경영 회복을 목표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 추진 역시 유동성 위기를 넘



동광주점 전경

기고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점포 매각 대금과 함께 올해 중 이스프레스 부문을 매각해 회생채권 변제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자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이번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5곳 외에 추가 점포도 ‘매각 후 재임점’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잭자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임차 점포는 단계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 구체적으로 117개 점포 가운데 41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할 방침이다.

이처럼 홈플러스 동광주점의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동광주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근무 중인 200여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노총 홈플러스 관계자는 “광주지역에 현재 동광주점, 광주하남점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동광주점이 우선 매각 대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자

직원들 사이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졌다”며 “언제든 매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했지만 당장 올해 현실화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들에게 폐점에 관해 물어보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일방적으로 본사에서 매각 추진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해버린 상황이라 직원들은 거취를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법원은 채권단 의견을 참고해 회생계획안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허가될 경우 홈플러스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송시영(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임수택 수석부회장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 나선다

중기부·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신고센터·지원 방안 마련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쿠팡 사태에 대해 정부가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전남지방중 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사이에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자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

시에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 사태 피해 신고센터’는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개설되며,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89곳) 소속 소상공인 대상으로 쿠팡 사태 관련 피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은 ‘쿠팡 사태 범정부TF’에 공유하여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해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제네시스 G80 연식변경 모델 출시

2026 G80·G80 블랙…기본 사양·디자인 고급감 강화

제네시스는 8일 대형 세단 G80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G80’과 ‘2026 G80 블랙’을 출시했다.

신형 G80은 고객 의견을 반영해 민족 도가 높은 사양 위주로 기본 사양에 포함하는 등 구성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2026 G80에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주행 편의를 높이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기본으로 적용하

고, 기본 사양으로 운영하던 항균 패키지를 커비니언스 패키지 구성 사양으로 변경해 전반적인 사양을 최적화했다.

또 인기 사양을 조합한 패밀리 패키지 I·II를 하나로 통합해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통합된 패밀리 패키지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I·II,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II, 빌트인 캠 패키지로 구성된다.

블랙 색상을 바탕으로 절제된 고급감과 존재감을 갖춘 ‘2026 G80 블랙’은 빌트인 캠 패키지 등 고객 선호 사양이 기존에 상품 경쟁력이 더욱 향상됐다.

2026 G80의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5978만원, 3.5 가솔린 터보 6628만원이며, 2026 G80 스포츠 패키지의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6372만원, 3.5 가솔린 터보 7179만원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한전-LS전선, HVDC 케이블 실시간 진단 상용화 ‘맞손’

지중·해저케이블 ‘SFL-R’ 공동 사업화로 세계 시장 공략

한국전력이 자체 개발한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LS전선과의 협력을 통해 지중·해저케이블 진단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상호화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拉斯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기간 중 LS전선과 지중·해저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 ‘SFL-R(Smart Fault Locator-Real

Time)’의 사업화 협력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구본규 LS전선 사장을 비롯한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SFL-R은 한전이 독자 개발한 실시간 고장 탐지 기술로, 전류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노이즈 제거 기법을 적용해 고장 발생과 동시에 99% 이상의 정확도로

이상 구간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1·#3 HVDC, 북단진-고덕 HVDC 등에서 운영 중인 세계 유일의 장거리 HVDC 실시간 전류 신호 측정 기반 케이블 모니터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양사는 향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입찰 사업에 SFL-R이 적용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과 진단 솔루션을 공동으로 제작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 협력을 넘어 공동 사업화 모델을 구축해 국가 전력·케이블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www.hdhitec.co.kr

HYUNDAI HI-TEC Industry

신뢰와 기술을 토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 현대하이텍

현대하이텍 본사

현대하이텍 제2공장 기업부설연구소

계열사 : 주식회사 넥스오토

고객과의 신뢰 강화와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HD (주)현대하이텍
HYUNDAI HI-TEC Industry Co. Ltd.

· 본사/제1공장/주·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7(오선동) · 제2공장/부연구소·광주 광산구 평동산단5번로 81
· TEL: 062-953-2240 · FAX: 062-952-2186 · e-mail: kq24@daum.net · Homepage: www.hdhitec.co.kr